

**韓·中 중형항공기사업,
중국과 협상결렬**

한국과 중국이 2년이상 추진해온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이 무산됐다.

韓·中 양국은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북경에서 항공기분과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사업의 미합의 경쟁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되었다.

우리측 이진우 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장과 중국측 湯小平 중국항공공업총공사(AVIC) 국제합작무역

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개최된 동 회의는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최종조립장 위치, 합작지분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측은 중형항공기 최종조립장을 중국(상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고, AVIC이 AIA(유럽연합, AI(R)과 에어버스사와의 합작사) 및 STA(싱가폴 테크놀로지)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10%의 지분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기계적인 조립장은 중국으로 하되, 최종완성은 한국에서 수행하는 Airbus방식의 작업분담안을 제시하고, 지분문제

에 있어 당초 합의했던 동등지분의 참여를 주장했다.

결국 중국측이 우리의 의사를 거부함으로써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으며 우리측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제3협력선과 제4아시아협력선을 선정하는 등 양국정부간에 이미 합의된 협력원칙을 벗어난 점을 지적하고 모든 책임이 중국측에 있음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 2월 싱가포르의 STA사를 제4아시아 협력선으로 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중국의 사업주도, 합작회사의 중국내 위치, 중국의 다수지분보유(중국 45%, AIA 39%, STA 16%)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유럽연합/싱가폴의 3자간 협력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다. 중국은 당초 한국과 합의했던 호혜평등, 공동투자, 공동위험부담, 공동시장개발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국의 사업주도, 중국의 다수지분보유, 최종조립장 중국내 설치, 합작회사의 중국내 위치라는 중국의 일방적인 신4원칙을 주장해왔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7월에 있을 韓·中 산업협력위원회에 보고되어 정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韓·中 중형항공기 협상일지

- 한·중 정상간(93.11. 94.3. 95.11)에 걸친 공동개발 합의
- '94.6.6 양국정부간 <민간항공기 산업기술협력 및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94.6.15 제1차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개최(서울)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
- '94.10.11 제1차 한·중 항공기 분과위원회 개최(북경)
호혜평등, 공동투자, 공동위험부담, 공동시장개발 등 원칙합의
한·중 70~80%, 제3협력선 20% 이내, 제4아시아파트너 10% 이내로 합작지분율 합의
- '94.10.31 이봉총리 방한시 항공기공동개발 정부간 약정체결
한국의 삼성항공과 중국의 AVIC을 주관회사로 인정
- '95.4.22 제2차 한·중 항공기분과위원회 개최(서울)
양국의 주관업체가 제3협력선 및 기타 아시아협력선의 선정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키로 합의
- '95.6.14 제2차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1,2차 항공기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추진
- '95.12.18 양국차관주재 한·중산업협력 실무위원회 개최(북경)
중국측에서 중국의 사업주도, 중국의 다수지분보유, 최종조립장의 중국내 설치, 합작회사의 중국내 위치 등의 신4원칙 주장
- '96.6.17.18 제3차 한·중 항공기 분과위원회 개최(북경)

**무궁화 3호 99년발사...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통신은 무궁화 1호 위성의 수명이 2000년초에 종료됨에 따라 3



한국통신은 지난 14일 외국인업체와 국내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무궁화 3호 위성 규격보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호 위성을 '99년 9월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6월 13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3호 위성은 12호 위성의 용량을 모두 수용하는 규모로 확대, 33개 중계기를 탑재하고 새로운 대역폭의 중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이와 관련 14일 한국통신 본사에서 미국 휴즈, 록히드마틴, 스페이스시스템즈로탈, 프랑스의 아에로스페이스, 영불합작의 마트라마르코니사 등 세계적인 위성제작업체들과 다목적실용위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항공등 7개 업체와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등 국내위성관련업체 및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3호 위성 규격보완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무궁화 3호 위성은 기존 12호 위성이 제공하는 직접위성방송, 케이블TV분배, 현장중계서비스 외에 원격진료 및 교육, 광대역 정보검색

서비스, 교통정보서비스 등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한국 조속가입 합의

한·미 두나라는 그동안 한국의 과학기술용 우주로켓 개발에 걸림돌이 돼 왔던 「미사일 기술이전에 관한 대미 보장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한국이 국제적인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을 위한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와 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AG:호주그룹)에 조속히 가입한다는데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서울에서 유명한 외무부 미주국장과 로버트 아인혼 미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비확산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국간 미사일기술 이전 △한국의 MTCR 및 호주그룹 가

입 △북·미미사일협상 진행상황과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송민순 외무부 미주심의관은 회담후 '우리의 우주개발 중장기추진 계획을 미국측에 설명하고 미사일 및 로켓개발에 관해 과거 미국측에 약속한 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미국측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70년대후반 미국으로부터 미사일관련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사정거리 1백80km 이상 미사일은 사실상 개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아왔는데 군사용이 아닌 과학기술 목적의 로켓개발시에는 이 같은 제한을 없애기 위해 미국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사업 추진위 개최...발사체 선정

다목적실용위성사업 발사체선정을 위한 제20차 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 12일 개최, 미국의 OSC사가 선정되었다.

이날 추진위원회에는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등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주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이 참석하여 미국의 OSC사를 1차 가선정하였다.

2차로 가선정된 업체는 아리안사로 OSC사와의 최종협상이 어려울 경우 아리안사와 협상하게 된다.